

통권 제 255호

강남. 라 00943

2569  
2025

01

새해 특집  
뱀의 지혜로  
준비하자  
을사년을



경전에서 찾은 지혜  
마라  
급하지도 게으르지도




생각의 열매  
금빛 사순양

영원한 진리와 함께

#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불교충지중

종조법설집

제1장 교상과 사상편 P.11

당상즉도 當相卽道 즉사이진 卽事而眞

진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다.



지장 스님의 향유 \_ 14  
나만의 치즈를 찾아  
\_ 지장 스님



마지막 공부 \_ 44  
뒷북을 울려라  
\_ 유소림



평상심사도 \_ 52  
행복한 사람들  
\_ 김천

- 04 새해 특집
- 09 불교 이야기
- 12 경전에서 찾은 지혜
- 14 지장 스님의 향유
- 18 마음챙김 메커니즘
- 22 절기 이야기
- 24 문화유산 해설
- 28 고전 속으로
- 32 산책
- 34 살다보면
- 40 지혜의 트랙
- 44 마지막 공부
- 46 담마빠다
- 48 동행
- 52 평상심사도
- 56 생각의 열매
- 60 십선성취
- 64 우리 절 노래꽃
- 68 서원당 안의 불교
- 70 금쪽상담소
- 72 나만의 빛 모두의 빛
- 76 가로 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 일정

- 백의 지혜로 을사년을 준비하자 - 법수연 전수
- 밀교와 관음신앙\_③ 관음신앙의 밀교적 배경 上 - 원당 정사
- 급하지도 게으르지도 마라 - 불교총지중 법장원
- 나만의 치즈를 찾아 - 지장 스님
- 명상의 정의\_① 용어와 의미 - 임진수
- 봄기운 싹트는 큰 추위, 대한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오세창이 상형문자로 쓴 어魚·거車·주舟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중요한 것은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 - 한국고전번역원
- 반성 - 류근
- 외로웠을, 그러나 아름다운 - 이옥경
- 인어 아가씨와 인어 아저씨 - 방귀희
- 뒷북을 울려라 - 유소림
- 도를 이룬다는 것 - 화령 정사
- 화안보시和顔布施 - 탁상달
- 행복한 사람들 - 김천
- 금빛 사슴왕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인도 성지순례기\_① 성지순례의 시작 - 남혜 정사
- 아름다운 세상 - 묘원화 전수
- 오대서원五大誓願 - 해광 정사
- 우리 아이 양육 길라잡이 4 - 강남구 구립어린이집연합회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의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언어의 실을 따라

제가 여덟 살이던 날을 기억합니다. 오후 주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너무 세차게 내리자 20여 명의 아이들이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었는데,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처마 밑에 또 다른 작은 군중이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제 팔과 종아리를 적시는 습기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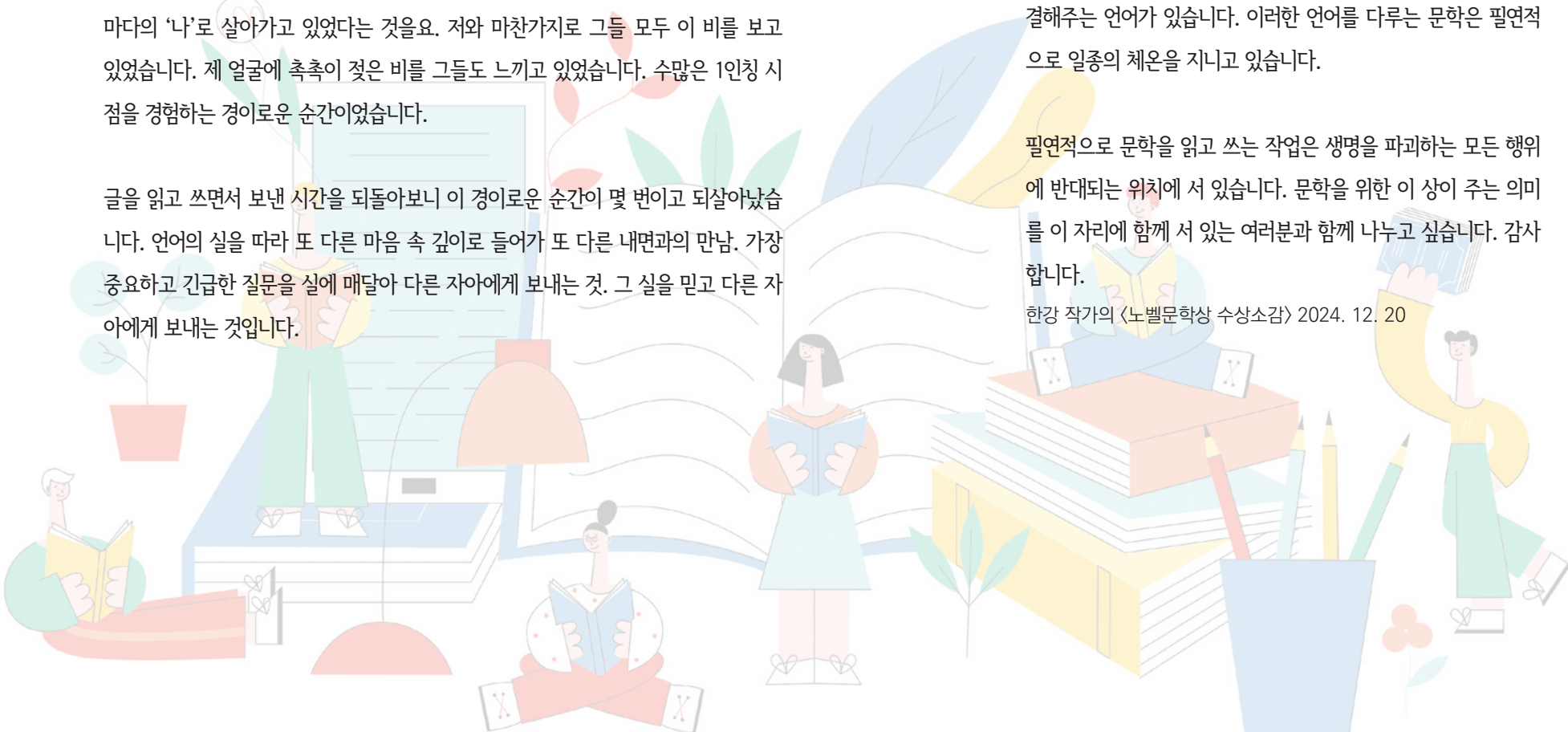
저와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나'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ですよ. 저와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 이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촉촉이 젖은 비를 그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1인칭 시점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쓰면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니 이 경이로운 순간이 몇 번이고 되살아났습니다. 언어의 실을 따라 또 다른 마음 속 깊이로 들어가 또 다른 내면과의 만남.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을 실에 매달아 다른 자아에게 보내는 것. 그 실을 믿고 다른 자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문학이 던져온 질문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가장 어두운 밤,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묻는 언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생명체의 일인칭 시점으로 상상하는 언어,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되는 위치에서 있습니다. 문학을 위한 이 상이 주는 의미를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소감> 2024. 12. 20



## 뱀의 지혜로 을사년(乙巳年)을 준비하자!

법수연 전수  
총지사 교화스승

우리는 선조들이 해마다 육십갑자나 동물로 한 해를 표시해서 생활에 활용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선조들은 오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천지자연의 이치에서 터득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전통 속에 간직해 왔습니다.

육십갑자는 열 개의 글자로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는 천간과 열두 개의 글자로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지지를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지지는 동물에 비유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육십갑자는 방위를 나타내는 기호로 쓰이고, 운명을 예지하는 점술에도 사용됩니다. 계절이나 달을 표시하기도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하는 등 매우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그 육십갑자 중에서 뱀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한 동물로 간주해 왔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뱀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집 안에 있는 구렁이는 ‘업구렁이’라고 하여 재산을 지키는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불교 경전이나 설화 가운데 나쁜 업을 지은 과보로 뱀의

몸을 받은 경우가 있고, 우리 육신에 대한 비유로서 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금강산 돈도암이라는 암자에 흥도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병이 들어 며칠간 방에만 있다가 그날은 하도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 소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옷을 벗어서 한쪽에 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벗어놓은 옷을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스님은 화가 나서 신경질을 부리며 “부처도 소용없고, 팔부신장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나처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도 그렇고, 바람까지 불어서 병든 나를 괴롭히니, 이래서 불교에 무슨 영험이 있다고 할 것이냐!”하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팔부신장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꿈속에 토지신이 나타나서 현몽해 꾸짖었습니다. “불자는 자비를 집으로 삼고, 인욕을 옷으로 삼으라고 하였는데, 그까짓 병을 좀 앓고 바람에 옷을 날렸다고 진심을 내다니, 그리해서 무슨 공부를 하였다고 할 것이냐? 부처님도 정한 바 업은 면하지 못하고 과보를 받으셨거늘, 너 같은 초발심 비구가 무엇이 그리도 대단하다고 그러느냐. 병이 난 것은 네 업보요, 바람이 분 것은 도량신이 너의 공부를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인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니 그 무슨 체통 없는

짓이나?” 꾸짖더니만 느닷없이 구렁이 껍데기를 씹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렁이가 된 흥도 스님은 돌담 속으로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수행승 한 분이 돈도암을 찾아왔는데 서까래 같은 굵은 구렁이 한 마리가 마당에서 기어 다니고 있으므로 가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이 합장하고 ‘나무대 방광불화엄경’을 세 번 외운 뒤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라는 『화엄경』의 요지를 일러 주었습니다. 이 말은 “만일 사람이 삼세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이 모두 마음으로 지은 것임을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 구렁이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꼬리를 아궁이에 넣어 재를 문혀서 부엌 바닥에 글을 쓰더랍니다. 그 내용은 구구절절이 성낸 것을 후회하고 진심을 내지 말도록 다른 이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우리에게 탐<sup>貪</sup>·진<sup>瞋</sup>·치<sup>痴</sup>·삼<sup>癡</sup> 삼독 가운데 진심, 곧 성내는 것이 얼마나 독이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사비유경』이나 ‘안수정등<sup>岸樹井藤</sup>’에 나오는 비유에서 뱀은 지<sup>地</sup>·수<sup>水</sup>·화<sup>火</sup>·풍<sup>風</sup>의 4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애지중지하는 이 육신은 본래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 인연 따라 일시적으로 모인



것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독사를 품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본래 선과 악이 따로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생명체는 모두 불성을 소유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본질과는 다르게 악의 화신이 되기도 하고 선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뱀은 뱀이지 사람이 뱀을 좋게 본다고 좋아지고, 나쁘게 본다고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뱀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진실을 파악하는데 우리의 선입관이나 관념이 오히려 방해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사는 “지극한 도를 깨닫기는 어렵지 않다. 오직 차별을 꺼릴 뿐이다. 단지 스스로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심만 내지 않으면 도는 명백히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뱀이 겨울잠을 자는 것은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고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슬기입니다. 몸에 털이 없는 동물이므로 겨울의 혹한을 견딜 수 없어서 겨울 한 철을 땅속에서 죽은 듯이 지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생활입니까? 뱀이 한겨울 땅속에서 슬기롭게 봄을 기다리듯, 조바심 내지 말고 느긋하게 묵묵히 기다리며 일해 나갈 줄 아는 지혜, 자기를 다스리는 생활, 자신의 이웃을 두루두루 보살피는 생활, 후회하지 않은 보람된 생활을 꾸려가도록 합시다.

불교는 중인도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든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 뒤 펼친 가르침이다. 붓다가 깨달은 진리를 법<sup>Dharma</sup>이라 하였으며, 이것은 붓다가 세상에 출현하건 안 하건 무시이래로 있어 온 변치 않는 진리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은 역사적으로 근본불교 시대, 아비달마불교 시대, 대승불교 시대를 지나서 밀교 시대로 전개하였다. 불교는 시대를 달리 하여 하나의 법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 모두 붓다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은 현교<sup>顯教</sup>와 밀교<sup>密教</sup>의 둘로 나눌 수가 있다. 현교는 현로불교<sup>現露佛敎</sup>의 줄인 말로 겉으로 나타내어 설해진 가르침을 말하고, 밀교는 비밀불교<sup>秘密佛敎</sup>의 줄인 말로 곧 부처님의 비밀한 세계를 드러내어 설한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로 구히야야나<sup>Guhayāna</sup>이며, 비밀승이라 번역한다. 이 외에도 진언승<sup>Mantrayāna</sup>, 다라니승<sup>Dhāraṇīyāna</sup>, 금강승<sup>Vajrayāna</sup>, 탄트라불교<sup>Tantric Buddhism</sup> 등의 용어로 부르고 있다.

비밀은 자세히 신밀<sup>身密</sup>, 구밀<sup>口密</sup>, 의밀<sup>意密</sup>의 삼밀<sup>三密</sup>로 이루어져 있다. 붓다가 깨달은 세계는 말이나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



Photo by Marina De Salis@Unsplash

계이며, 수행자가 스스로 체험하여 증득하여야만 하는 세계이다. 밀교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의 세계를 진언다라니로 상징하고, 부처의 인계(印契)로 상징하며, 부처와 우주의 일체 세계의 본질을 독특한 선과 색채로 도상화한 만다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이 그 몸과 말과 뜻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내어 거기에 부처님이 깃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생이 깨달음이라는 신비스러운 세계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직접 증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깨달음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여 부처와 행자의 일체화가 이루어지는 수행을 삼밀수행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활동 즉, 신체의 활동, 언어의 활동, 마음의 활동을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이라 부르고 있다. 거기에 대하여, 밀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범신비로자나부처님과 일체화된 경지에서 바라보면 근본적으로 범신비로자나부처님의 활동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즉, 이러한 경지에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범신비로자나부처님의 신체적 활동의 다른 모습이요, 모든 음성은 범신비로자나부처님의 언어적 활동이며, 온갖 마음의 움직임은 범신비로자나부처님의 심적 활동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세 가지 활동인 신업(身業), 구업(口業), 의업(意業)을 범신비로자나부처님의 활동 그 자체로 보아 신밀, 구밀, 의밀의 '삼밀'이라 한다.

그러나 중생의 모든 활동이 그대로 범신비로자나부처님의 활동과 다름이 없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중생에게는 비밀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래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건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범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여 자기가 바로 부처임을 자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삼밀수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급하지도 계르지도 마라

불교총지종 법장원

어떤 사문이 밤에 경을 읽다가 그 뜻을 알지 못해 슬퍼했다.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내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사문을 불러 물으셨다.

“네가 옛날 집에 있을 때 무엇을 하였느냐?”  
“거문고 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줄이 느슨하면 그 소리가 어떠하더냐?”  
“소리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줄이 너무 조여지면 어떠하더냐?”  
“소리가 너무 높고 짧았습니다.”  
“조여짐과 느슨함이 알맞으면 어떠하더냐?”  
“모든 소리가 조화되고 좋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다.

“도를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 마음이 만약 적당하게 고르면 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도에 너무 조급하면 몸이 곧 피곤하다. 그 몸이 피곤하면 고달픈 마음이 일어나고, 고달픈 마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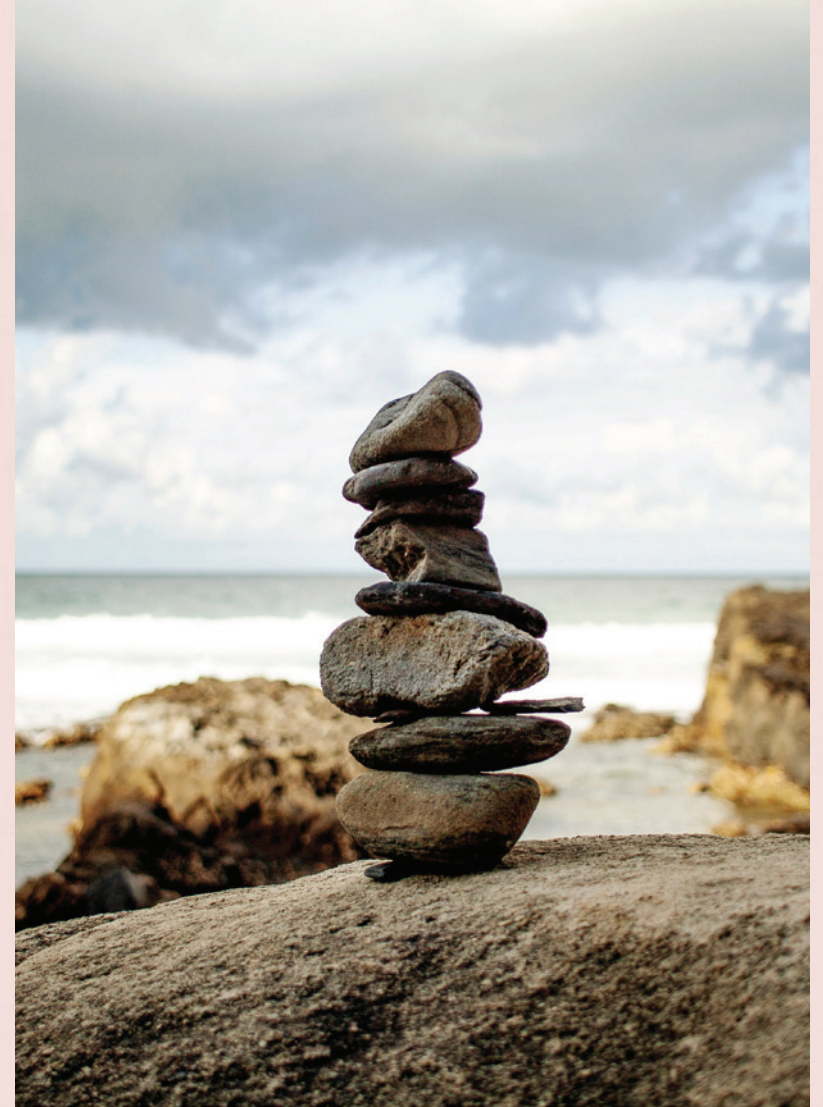


Photo by Aaron Burden@Unsplash

생기면 수행이 곧 퇴보되며, 그 수행이 퇴전하면 죄를 반드시 범하게 되는 것이니, 다만 청정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행하면 도를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사십이장경 四十二章經』



## 나만의 치즈를 찾아

지장스님

청주 용화사 연수원장

〈누가 내 치즈를 훔쳤을까?〉는 스펀서 존슨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스니프와 스커리라는 작은 생쥐, 꼬마 인간 험과 허가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미로를 탐색해 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치즈를 찾아다닙니다.

생쥐들은 단단하고 갇아먹기 좋은 치즈를 원하고, 꼬마 인간들은 대문자 'C'라는 이름의 나름 명품 치즈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들이 찾아 헤매는 치즈는 보통 우리가 얻고자 하는 좋은 직업, 인간관계, 건강, 사랑, 재산, 혹은 영적인 평화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 주인공들은 그들이 원하는 치즈를 발견합니다. 꼬마 인간들은 마음 놓고 행복과 성공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치즈를 얻은 것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에 취해 살았으며, 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반면 생쥐들은 시간이 흘러도 매일 하던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C창고에 치즈가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에 직면합니다. 생쥐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즈의 재고량이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쥐들의 문제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고 즉시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났습니다.

반면 매일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던 두 꼬마 인간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치즈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스트레스였고, 또 이들에게 있어 '치즈'란 단순히 배를 불리는 양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가 '치즈'에 걸고 있던 희망은 현재 자신의 삶, 즉 생활의 보장이자 미래의 안정이었습니다. 험의 경우엔 다른 사람을 거느리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 카망베르 치즈 언덕에 큰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즈를 통해 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치즈와 함께 그들의 계획 또한 사라졌습니다. 꼬마 인간들은 한동안 도대체 치즈가 어디로 갔는지, 혹은 왜 갔는지 사태를 분석하느라 정신없었고, 그러는 사이 굶주림과 스트레스도 더해졌습니다. 마음에 좌절과 분노가 생겨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꼬마 인간 허는 사라진 치즈에 집착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하기만 할 뿐,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치즈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는 불투명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또 다른 꼬마 인간 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험은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어 허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험을 남겨두고 허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모험을 떠납니다. 중간에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사실을 깨닫게 되고 친구 험을 위해 벽에 그 내용을 새겨두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치즈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었다. 치즈의 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남아있는 치즈는 오래되어 맛이 변해가고 있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치즈는 오래되어 곰팡이까지 피어 냄새가 났다. 마음만 먹었다

면 다가올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부처님도 세상의 본질은 변화<sup>無常</sup>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꼭 우리의 의도나 예상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sup>無我</sup>. 변화 그 자체는 순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변화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모든 과정과 현상은 따지고 보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실체’입니다. 몸과 마음의 변화, 외부 현실의 변화를 잘 알아차리고 직시할수록 인식이 유연해지고 확장됩니다. 두꺼운 껍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탈피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식이 도약할수록 어떤 것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더 분명히 보이며, 스스로 찾고자 하는 답을 변화라는 현상 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곧 지금, 이 순간의 역동적인 살아있음 그 자체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평상시 우리는 알 수 없는 수많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윤곽선만을 보고 삽니다. 대부분 그것이 전부고 실제라는 착각에 빠져 있지요.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나만의 치즈를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 명상의 정의

### - ① 용어와 의미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 명상이라는 단어의 의미

명상이라는 단어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meditation’이라고 하는 기독교 용어가 ‘명상<sup>冥想</sup>’으로 번역된 것이라고 한다.

기독교에서 명상이라고 하면 보통 고요히 눈을 감고 잡생각을 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것은 신에게 기도하기 위한 사전 단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서양에서 생각하는 ‘meditation’이란 단어의 개념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명상’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사전단계인 묵상<sup>默想</sup>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에 반해 동양에서 명상이라고 하면 불교의 참선<sup>參禪</sup>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자기 스스로 탐구하기 위해 자신에게 질문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 서양에서 불교의 선정수행<sup>禪定修行</sup>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medit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선정수행을 ‘meditation’으로, 다시 ‘meditation’이 명상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명상이라는 단어의 개념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서양에서는 동남아 불교인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제거하고 명상 부분만 받아들이면서 심리학적 관점의 현대 명상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기독교사상에 기초하는 서구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불교 명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명상은 여러 의미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단어가 되었다.

#### 명상이라는 용어의 범람

요즘 명상에 대해 알아보면, 명상이란 용어의 인플레이션 시대임을 알 수 있다. 명상에 호기심이 생겨서 검색해 보거나 유튜브

브에서 찾아보면 의외로 꽤 많은 명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좀 더 찾아 보면 ‘명상’, ‘마음챙김’, ‘마음공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명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명상을 꽤 해본 사람에게도 수많은 명상 속에서 옥석을 가려낸다는 건 쉽지 않다. 더구나 각자 주장하는 명상법이 달라서 명상에 관한 개념을 잡는 것은 미로 속에서 헤매는 기분이다.

그 이유는 요즘 ‘개념’ 또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 뒤에 명상이라는 말을 붙이면 전부 명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음악’이라는 단어에 ‘명상’을 붙이면 ‘음악 명상’이 되며, ‘미술’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미술 명상’이 되고, ‘달리기’라는 단어에 ‘명상’을 붙이면 ‘달리기 명상’이 되는 식이다.

이렇게 명상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쓰이면서, 명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오히려 모호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명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을 잡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하던 명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지금의 명상이라는 단어의 의미 사이에는 꽤 큰 틈이 존재한다.

이것은 ‘운송 수단’이라는 단어의 개념과 비슷하다. 운송 수단

은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그런데 운송 수단에는 사람이 직접 물건을 옮기는 ‘등짐’이 있는가 하면 말, 소, 당나귀 등 동물에게 짐을 실어 옮기는 것이 있다. 또 도구의 발달로 육지에는 바퀴 달린 기구를 이용한 사람이 끄는 손수레, 동물이 끄는 달구지와 마차 등이 있고, 바다에는 바람을 이용하는 범선이 있다. 또한 과학이 발달하면서, 내연 기관을 이용한 자동차, 기차, 선박 등이 있고, 나아가 하늘을 나는 비행기, 헬리콥터, 우주선까지 수많은 운송 수단이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운송 수단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사람의 등짐이나 소와 말이 끄는 달구지 등을 비행기나 우주선 등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이것을 명상에 대입해 보면, 수많은 운송 수단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명상법이 있음에도 오히려 ‘명상이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 명상의 정의

그러면 명상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그런데 명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즘 사람들이 왜 명상하려고 하는지 살펴 봐야 한다.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명상에 대한 통념을 통해, 거꾸로 명상의 의미를 찾아보려 한다. <다음 호에 이어>

대한은 24절기의 마지막 절기로 양력 1월 20일경이다. 음력으로는 12월 중기이며, 양력으로는 소한 15일 후부터 입춘 전까지의 절기이다. 대한은 큰 추위라는 뜻이지만 대한이 지나면 곧 봄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한은 음력 선달로 매듭을 짓는 절후이다. 원래 겨울철 추위는 입동에서 시작하여 소한으로 갈수록 추워지며 대한에 이르러서 최고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경험에 입각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가 1월 15일께이므로 다소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춥지 않은 소한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 없다',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소한의 얼음 대한에 녹는다'라는 속담도 있다.

옛날에는 대한 5일 후부터 입춘 3일 전까지 약 일주일의 기간을 '신구간'이라고 불렀다. 이 시기는 묵은해의 마지막 절기인 대한과 새해 첫 절기인 입춘 사이, 즉 묵은해와 새해 사이라는 상징적인 시기다. 또, 신구간 시기에는 가신(家神), 집을 지키며 집안의 운수를 좌우하는 신들이 전부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Photo by Mira Kemppainen@Unsplash

집안 손질, 집수리 등을 한다. 이때만큼은 집안을 고치더라도 티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풍습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대한을 겨울을 매듭짓는 절기로 믿어왔다.

옛 풍속에서는 이날 밤에 해넘이라고 해서 방이나 마루에 콩을 뿌려 악귀를 쫓고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다. 대한이 다가오면 하루 한 끼, 꼭 죽을 먹었다고 한다. 대부분 겨울이 오면 추운 겨울나무 한두 짐 해오는 일 외엔 일이 없어 놀고먹느라 삼시 세끼 밥 먹기에 죄스러워서 죽을 먹는 것이라고 한다. 옛사람들은 대한 즈음이 되면 지난해에 농사지은 곡식으로 찰밥을 지었으며, 김장 후에 말려둔 시래기나 무청으로 따뜻한 시래깃국을 끓여 먹거나 나물을 무쳐 먹기도 했다.



오세창, <어·거·주>, 1929년, 종이에 먹, 149.6×61.9cm,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회 기증, 증7014, 국립중앙박물관 어문행 큐레이터 추천, 공공누리 저작물.

<어·거·주>는 3·1운동에 참여한 애국지사이자 근대 한국의 대표 서예가인 위창(筆諱)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1929년 작품입니다. 오세창은 화면 가운데에 물고기(魚)·수레(車)·배(舟)를 의미하는 세 글자를 상형문자로 쓰고, 그 옆에 글자의 뜻을 작은 글씨로 적었

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오세창의 인장 ‘수양(首陽)’, ‘위로고흥(葦老高興)’, ‘와전산방(瓦全山房)’이 찍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림 같고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어·거·주>에는 사실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 오세창, 민족의 어른이 되다

오세창은 1864년(고종 1) 역관(譯官) 오경석(吳慶錫, 1831~1879)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업을 이어받아 1879년(고종 16) 역과(譯科)에 급제했고 중국어 역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1886년(고종 23) 박문국(博文局) 주사(主事)로 근대 신문 <한성주보(漢城周報)>의 발간에 참여했고, 갑오개혁 이후 관직에서 물러난 뒤로는 언론인으로서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오세창은 1910년 국권을 강제로 빼앗겼을 때 일제가 내린 작위와 은사금을 받지 않았고, 1919년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해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오세창은 2년 8개월간 옥고를 치렀으며, 이후 작품 활동에 전념한 채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창은 광복 이후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이자 민족의 어른으로 존경받았으며,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 피난지 대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2년 오세창에게 건국훈장 복장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 오세창의 예술 활동과 <어·거·주>

오세창은 1921년 출옥 후 전서(篆書)와 상형고문(象形古文)을 바탕으로 여러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또 고서화 정리에도 힘써 1928년 한국 최초의 서화가 사전인 <근역서화징(楹域書畫徵)>을 발간하는 등 예술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오세창은 1929년 10월 서화협회(書畫協會)가 주최한 제9회 서화협회전이하 '협전'에 <어·거·주>를 출품했는데 화가 심영섭(沈英燮, ?~?)은 오세창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비평했습니다.

“오세창 씨의 <어·거·주>와 같은 작품은 나의 많은 흥미를 끌었다. 참으로 상형문자의 격식으로 저만큼 천연의 기운을 나타내기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어·거·주’라는 뜻을 몰라도 좋다. 오직 형태에 나타난 형태 이외에 웅담한 골기를 찾아보면 좋다.”

- <제9회 협전평>, <동아일보>, 1929년 11월 2일 4면 2단

심영섭이 칭찬한 협전의 <어·거·주>는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으나, 국립중앙박물관에 거의 같은 시기에 제작한 <어·거·주>가 남아 있어 오세창의 필치(筆致)와 작품 맥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어·거·주>에 담긴 의미

오세창이 행서로 쓴 <어·거·주>의 전거(典據)는 중국의 옛 책인 <전국책(戰國策)>에 실려 있습니다. ‘어물고기’는 비목어(比目魚)라는 물고기로 힘을 합쳐 움직인다는 뜻이고, ‘거수레’는 수레가 밀리지 않으면 힘을 더해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며, ‘주배’는 서로 모르는 사람도 배를 타고 가다가 큰물을 만나면 서로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세 이야기는 비유가 다르지만 작은 세력이라도 힘을 합치면 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세창이 어떤 이유로 <어·거·주>를 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쓰다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였다는 점과 <어·거·주>를 제작한 1929년이 3·1운동 10주년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는 우리 민족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겼는데 오세창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일제의 감시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지만, <어·거·주>라는 작품으로 우리 민족에게 ‘작은 힘이라도 합쳐야 독립의 염원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 중요한 것은 꺾여도 계속하는 마음

고은한

'한국고전종합DB' 활용 공모전 고전문구 부문  
당선자

배우는 자가 걱정할 바는 오직 뜻을 세우는 것이 성실치 못한 데 있는 것으로, 재주가 혹 부족한 것은 걱정할 바가 아니다.

學者所患惟在立志不誠 才或不足非所患也

학자소환유재입지불성 재혹부족비소환야

- 김성일 金誠一, 1538~1593, <학봉집 鶴峯集> 「학봉선생문집부록 鶴峯

先生文集附錄」 권2 '행장 行狀'

인터넷과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누군가의 성공담을 너무나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세대에 접어들었다. 어디를 보아도 온통 성공, 성공뿐이다. 그러나 만연해진 성공보다 더 흔해진 것은 자포자기다. 사람들은 도통 무언가를 쉽사리 해 보려 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과 자신은 아예 다른 부류라고 선불리 못 박아 놓는다.

이는 SNS 속에서 목격되는 성공의 장면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리라고, 감히 짐작해 본다. 그것은 바로 과정이다. 성공은 오롯이 결과다. 그들이 그 자리까지 도달하기 위해 들였을 노력과 끈기의 과정은 꼭꼭 숨어 보이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보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더 옳을 것 같다.

부끄럽게도 나 또한 그러하였다. 피드를 넘기는 찰나, 그들의 노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보다는 '저들은 원래 성공할 사람이라서', '내겐 저런 재능이 없어서'라 치부하며 게으른 현실에 안주하였다. 그러다 이 글을 우연히 마주했을 때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철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무언가 도전하기 두려울 때 한결같이 둘러대 왔던 나의 알팍한 핑계를 날카롭게 꼬집혀서였다. 나의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뜻을 세울 마음도 없으면서 실패부터 걱정해 지레 겁먹는 나약한 성정이었다.

<학봉집 鶴峯集>에는 이러한 구절도 있다. “재주가 없더라도 군자가 되는 데 방해되지 않으며, 재주가 있더라도 소인으로 귀결됨을 면치 못하니, 이는 단지 학문을 함에 있어서 뜻을 세우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無才而不妨爲君子 有才而不免爲小人之歸 只在爲學立志之如何耳.” 어떠한 일에 있어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을 나누는 것은 선천적인 재능도, 조건도 아닌 오직 부단한 노력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못 본 체하고 그 성과만을 단지 재능의 영역으로 치부하



며 시기했으니, 내게 성공이란 것이 찾아올 리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저앉을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꺾이지 않고 버티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꺾이더라도 일단 계속해 보려고 한다.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지만, 잠시 쉬었다가 한 발짝 다시 내디디면 그것은 발전이므로.

고질병 같은 습관을 떼어내려, 새해부터는 크게 용기를 내어 미루어 뒀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볼 작정이다. SNS를 무심하게 넘기기보다는 좋은 글로 마음의 양식을 쌓아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성실한 길을 닦아나간다면, 그 길의 끝에서야말로 비로소 다른 사람의 성공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다.

〈출처: 한국고전번역원〉



## 류근

시인

대표시집 <상처적 체질>, <어떻게든 이별> 등  
 에세이 <진지하면 반칙이다> 외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 김광석>  
 KBS <역사저널 그날> 외

하늘이 함부로 죽지 않는 것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별들이  
 제 품 안에 꽃피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조차 제 품 안에서 평화롭기 때문이다  
 보아라, 하늘조차 제가 낳은 것들을 위해  
 늙은 목숨 끊지 못하고 고달픈 생애를 이어간다

하늘에게 배우자  
 하늘이라고 왜 아프고 서러운 일 없겠느냐  
 어찌 절망의 문턱이 없겠느냐

그래도 끝까지 살아보자고  
 살아보자고 몸을 일으키는  
 저 굳센 하늘 아래 별이 살고 사람이 산다



## 외로웠을, 그러나 아름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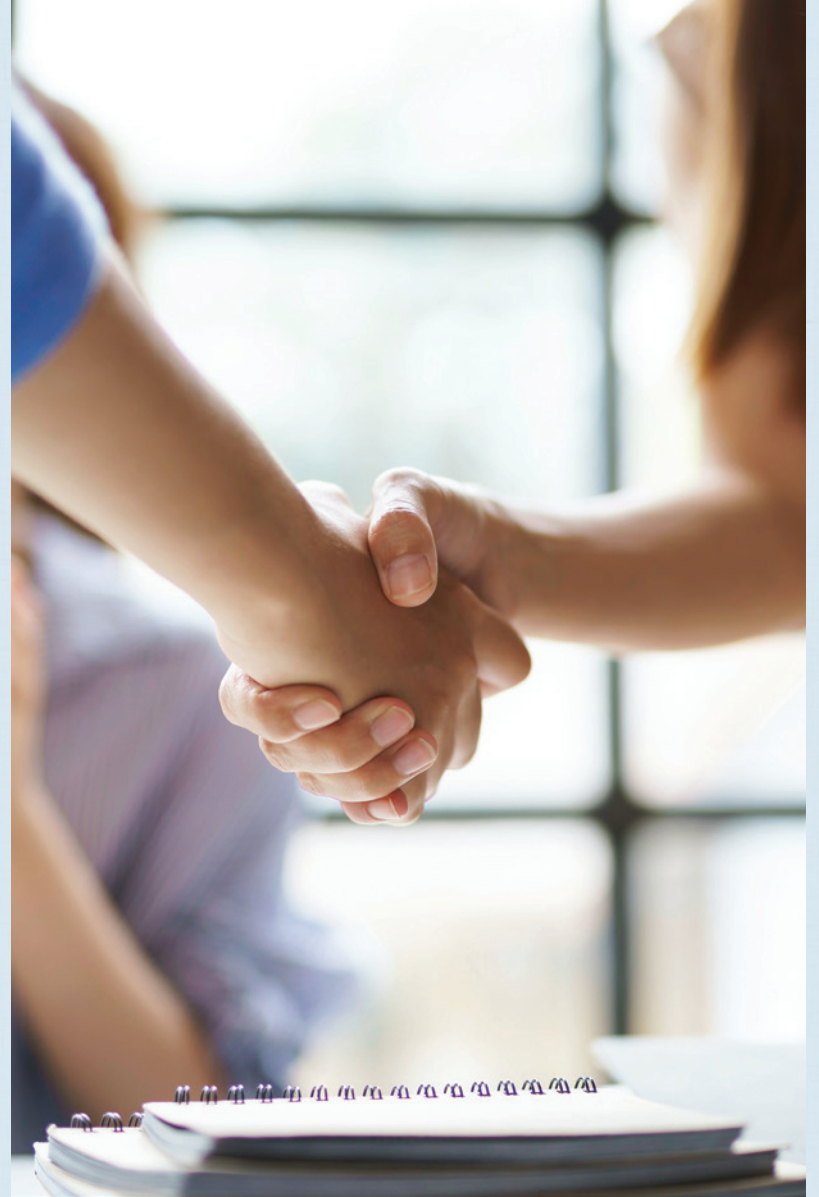
###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얼마 전, ‘강릉자수 미의 향연’을 주제로 한 김순덕 강릉 전통 자수장의 전승 발표회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강릉자수의 기원으로 알려진 신사임당의 글과 그림을 재해석한 ‘자수 초충도’와 ‘자수 초서’, 강릉 양반가 여인들의 뛰어난 솜씨가 담긴 ‘강릉수보 복원품’ 등 김순덕 자수장의 작품이 보여주는 섬세함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아름다운 작품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과 정성, 시간과 노력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보아 넘길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망막박리로 네 차례에 걸쳐 눈 수술을 받으면서도 여든이 눈앞인 지금까지 인생 마지막 소원인 “강릉의 아름다운 자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바늘을 놓지 않고 있다는 자수장의 집념임에야.

지난 50여 년간 ‘강릉수보 복원품’과 신사임당의 글과 그림을 재해석한 ‘자수 초충도’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온 김순덕 자수장은 자수의 기본 기법과 강릉수보 제작 기법, 자수천의 프레임 접착 기법, 여의주문 이어 붙이기 기법 등 강릉자수의 제작 기법을 정리하고 전승하는 일에 전심전력해 왔다. ‘자수 초충도’, ‘강릉수보’, ‘여의주보’, ‘조각보’ 제작에 주력하면서 전통 자수의 기



법과 문양을 되살린 ‘초충도 병풍’을 비롯해 ‘자수함’, ‘오복 주머니’, ‘혼례용품’, ‘선물용품’, ‘가구류’ 다양한 자수 작품을 내놓으며 강릉자수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다.

강릉에 있는 기업에 한해 자수장의 작품을 무료로 디자인화하여 사용할 수도 있도록 통 큰 배려도 하고 있다. 오늘의 자수장을 있게 해준 지역사회에 대한 보답이자, 영세한 기업들의 저작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작품 문양의 디자인 경쟁력을 통해 성공에 작은 힘이랄도 보태고 싶어서라는 그 뜻이 감동스럽기까지 하다.

50여 년간 불교 목조각 한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다. 고윤학 불교 목조각장, 그는 목수였던 아버지 덕분에 일찌감치 나무 만지는 일에 눈을 뜨고 불상<sup>佛像</sup>과 보살상의 복원과 불구를 전통 방식으로 제작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 1978년 스승 석우일 선생을 만나 밑그림 뜨는 것부터 시작해 불상 조성하는 법까지 전통 불교 목조각을 배우고 익혔다. 불상을 조각하는 일과 단집을 만드는 일은 소목과 대목이라는 큰 차이가 있지만 대목이었던 아버지 일을 도왔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를 대목과 소목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불교 목조각이라는 외길을 걷게 했다. 목불상, 단집, 목 탕화, 탁자, 법상 등 절에 놓인 나무로 된 조각물을 두루 섭렵하는 그의 작업 과정은 불심과 맞닿아 있다. 경전을 알아야만 부처님 상호라든가 작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불교에 관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작업을 위해 절에 머물며 스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불심 또한 깊어졌다.

사찰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자 부처님의 외모와 종교적 권위를 형상화한 불상을 만드는 첫 단계는 나무를 준비하는 일이다. 느티나무, 홍송, 침향목, 박달나무도 좋지만, 최고의 나무는 은행나무다. 조성할 불상이 결정되면 나무에 밑그림을 그리고, 불상의 전체 형태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크게 쳐내는 건목 작업을 한다. 그다음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불상의 속을 파내고 아교나 어교를 써서 접목한 후 본격적인 조각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형태를 갖춘 불상은 반년 동안 말리면서 수정 보완하고 옷칠과 금박, 금분을 붙이는 개금 작업을 거쳐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 비로소 경외의 대상인 불상이 완성되는 것이다.

강릉에 자리 잡은 가장 큰 이유는 나무가 좋아서였다. 다른 지방과 달리 강원도 나무의 나뭇결은 그 운치와 경계가 달라 조각하는 맛도 다르고, 신기하리만치 손에 감겨 끼니를 잇을 정도로 작품에 몰두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은행나무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마다 기후 조건이 다른 만큼 그 지역에서 자란 나무를 쓰는 게 옳다는 생각에서 강원도에 들어갈 불상이면 강원도에서, 경기도나 경상도, 전라도에 들어갈 불상이면 역시 그곳에서 자란 나무로 조성해야 한다는 그만의 원칙을 고집한다. 수타사에서 자란 은행나무로 수타사의 부처님을 조성한 일이 남다른 감동으로 남아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상원사 문수동자

와 월정사 약왕보상좌상, 용연사와 현덕사의 불상을 비롯해 영동 지역의 불상들은 대부분 고윤학 목조각장의 손끝에서 빚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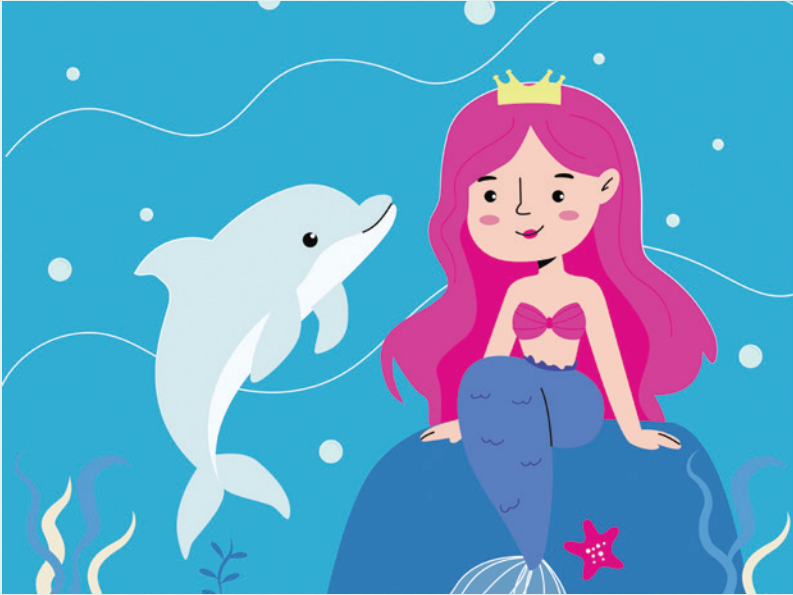
16세에 아버지 고 김영락 방짜수저장에게 방짜 수저 만드는 일을 배운 뒤 지금까지 4대째 방짜 수저의 독특한 제작 기법은 물론 예술적 가치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김우찬 방짜수저장의 우직함도 예사롭지 않다. 방짜 수저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수천 번 두드려 단단하게 만든 쇠덩이를 숯불에 달구어 모루에 올려놓고 위아래를 뒤집어가며 망치로 두드려 수저의 기본 모양을 만든다. 이것을 15회 이상 숯불에 담금질해 두드리면서 쇠의 강도를 높이고 광택이 나게 한 후 망치 자국이 울퉁불퉁한 손가락을 나무틀에 고정하고, 불에 달궈지며 생긴 때를 쇠칼로 벗겨낸다. 이 작업을 거치면 비로소 반짝이는 낫쇠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줄질로 다듬고, 날카롭고 뾰족한 칼로 머리와 손잡이에 문양을 새기고 나서 쇠기름으로 광을 내면 수저 한 벌이 탄생한다. 방짜 수저 한 벌을 만드는 데 40여 가지 도구를 사용해야 할 만큼 고되고 필요로 하는 시간도 많지만, 돈이 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한때 생활이 힘들어 방짜 수저 만드는 일을 포기할 생각도 했으나 지금은 방짜 수저를 지켜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등불 삼아 그 길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외로웠을, 그러나 아름다운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느냐만 실명의 위기를 견디면서 바늘을 잡고, 거친 손마디 겹겹이 쌓인 상처를 훈장처럼 여기며 끌과 망치를 들고,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렸을 그들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 김순덕 자수장, 고윤학 목조각장, 김우찬 수저장의 인내가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우리가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거나 천시하고 있을 때조차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그 자리를 지켜온 삶이 어찌 지난하지 않았겠는가. 알아주는 이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생활이 풍족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의 숨결을 담아 한 땀 한 땀 수를 놓고, 수백수천 번의 끌질로 부처님의 뜻을 새기고, 뜨거운 담금질로 가업을 잇고 있는 그들의 깊은 속내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갖는 공통의 근심거리는 일을 배우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문화유산 보유자들이 고령인 경우가 많고, 작업 환경이나 과정이 대부분 열악하고 힘든 데다 생활 방편이 되지 않아서 전수자가 없거나 지역사회의 관심 부족으로 전승 위기를 겪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다. 부디 무형유산에 대한 홀대로 인해 민족문화 계승이라는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의 맥이 끊기는 일이 없기를 빌 따름이다. 아름답지만 외로웠을, 어쩌면 앞으로도 외로울 수 있는 그 길에 따뜻한 빛이 늘 함께하기를.

## 인어 아가씨와 인어 아저씨

###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송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교수  
 <E美지> · <숫대평론> 발행인  
 저서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심상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조카들 덕분에 손주가 많이 생겼다. 얼마 전 호주에 사는 조카가 아이 둘을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직장이 있는 호주로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봉쇄되어 한국에 나들이하지 못했다. 그 후에는 임신과 출산으로 한국에 올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5년 만에 아이 둘을 데리고 네 식구가 고국 땅을 밟은 것이다.

엄마, 아빠를 반반씩 닮은 아이들을 보면서 DNA의 친연성을 실감했다. 어떻게 그렇게 골고루 닮아서 친자임을 확인해 주는지 신기했다. 5년 만의 귀국이라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어른들은 서로 ‘엄마 똑 닮았다’, ‘아빠 붕어빵이네’라며 누가 더 닮았는지를 찾기에 바빴다.

그런데 나는 또래 손녀 둘이 인어공주를 그리면서 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에 사는 아이나 호주에서 사는 아이나 여자아이들의 관심사는 같았다. 그래서 이야기 즉, 문학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를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문학, 나아가 예술이란 생각이 든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나도 어렸을 때 인어공주 이야기에 심취해 있었다. 인어공주가 왕자를 만나기 위해 마녀에게 찾아가 다리를 얻는 대신 목소리를 잃게 되고, 말하지 못하니까 왕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여 결국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물거품이 되는 이야기가 너무 슬펐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수동적이고 비극적인 존재로 만드는 동화라며 인어공주 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 유해하다는 주장도 하지만 요즘 아이들 역시 인어공주를 좋아한다.

이 이야기는 안데르센의 동화로 알고 있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에서 기원했다. 세이렌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새 모양의 여성으로, 바다 한가운데 솟은 바위 위에 앉아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을 유혹한다는 바다의 요정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신화에는 인어 아저씨가 있다. <산해경>의 저인(氏人) 신화인데 중국 신화로 알려졌지만, 신화가 만들어졌던 시기는 민족이 구분되지 않았을뿐더러 국경의 구획 없이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던 시대여서 동아시아의 신화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다.

<산해경>의 인어는 남자이다. 즉 인어 아저씨는 자기 비늘에서 뽑은 실로 반짝이는 고급 천을 짜서 육지에 팔아 큰돈을 번 생활력이 강하고 재능 있는 캐릭터다. 안데르센의 아름다운 인어 아가씨와는 판이하다. 인어공주에 익숙한 우리에게 인어 아저씨는 매우 낯선 이미지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인어 형상을 만들었을까? 물은 정화와 창조, 그리고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의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하는 포용성을 상징한다. 인어는 주류와 다른 모습을 한 비주류를 뜻한다. 비주류인 인어는 주류 세계에 들어오기를 원

하지만, 주류 세계에서는 그들을 배척한다.

주류가 비주류를 배척하는 것은 오늘날 더욱 극명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인어 아가씨와 인어 아저씨가 있다. 인어 아가씨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인어 아저씨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아이콘이다.

부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정토(淨土)는 바로 주류와 비주류가 해체되어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평등하여 불만이 없는 깨끗한 세상이다. 정토는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이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 지혜를 쌓고, 사회를 위해 자비행을 해야 한다.

새해는 자기 수양과 자비 실천을 통해 차별심을 갖지 않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내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 뒷북을 울려라

###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공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아픔을 주었을 때는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아픔을 받았을 때는 널리 관용하십시오. 사람이란 누구나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아픔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스승의 말씀을 듣는데 콧등이 시큰해진다. 그렇다. 누군들 처음부터 원숙하겠는가. 그러니 주변에 이런저런 상처를 주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약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미숙해서 상처를 준다. 자기 생각과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매사에 주관적 잣대를 진리인 양 휘두른다.

그런데 누구나 미숙한 구석이 있으니, 인생살이는 결국 상처로 끝나는 고해<sup>苦海</sup>란 말인가. 아니다. 삶은 상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원한다. 사람은 자아실현욕을 쫓 피우려 한다. 해탈하려고 한다. 2600년 전, 카필라성의 왕자가 그러했듯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Photo by Nellie Adamyan@Unsplash

본능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뜻이다. 성숙은 바로 행복의 다른 이름이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시발점이다. 고통은 진정 성제<sup>聖諦</sup>, 성스러운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동안 만난 모든 역경계<sup>逆境界</sup>가 은인이다. 미숙한 나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준 모든 존재는 그대로 보살이다. 저로 인하여 고통받은 모든 존재에게 깊이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를 아프게 한 모든 인연이여, 성숙의 길로 인도해 주었음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미숙한 우리는 서로에게 보살이요, 스승입니다. 아, 연기적 존재계의 오묘한 섭리여, 오묘한 축복이여, 무릎 꿇고 절을 올립니다.승입니다. 아, 연기적 존재계의 오묘한 섭리여, 오묘한 축복이여, 무릎 꿇고 절을 올립니다.



## 도를 다 이룬다는 것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지혜로운 자와 평생을 사귀어도  
어리석은 자는 진리를 모른다  
마치 손가락이 국 맛을 모르듯이

선지식과 함께하는 것은 도를 다 이룬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도반과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  
아난다가 “도의 절반을 이룬 것과 같다”고 했더니  
붓다께서는 “훌륭한 도반과 함께하는 것은 도의 절반이 아니라  
도를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선지식과 함께 있어도 누가 선지식인지  
조차 모릅니다. 그런 선지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지혜를 기르고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Photo by Manel & Sean@Unsplash

## 탁상달

시인, 문학평론가  
전 동해중학교 교장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 때, 물에 비친 모든 형상은 그 물결의 모양에 따라 일그러지고 비뚤어진다. 그러나 물결의 파문 波紋이 그치고 그 물이 본래의 고요하고 맑은 물로 돌아올 때, 거기에 비치는 모든 것은 참모습을 바르게 보여준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보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파문이 일지 않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수양이자 공부이다. 파문이 일지 않은 본래의 마음은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것에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겸손은 허심 虛心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세상살이에서 모든 일의 중심에는 늘 마음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마음의 힘은 용심법 用心法,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또한 나의 마음 씩씩이에 따라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인과법칙 因果法則이 작용한다. 좋은 원인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원인에는 나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즉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Photo by Jacqueline Munguía@Unsplash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했다. 사람의 본래 마음에는 요란함, 어리석음, 잘못됨이 없는데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상황이 나와 맞지 않아 의견이 상충할 때 요란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서 원래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잃어버린 본래 마음을 회복하면 다시 평온함을 경험하게 된다. 죄와 복, 즐거움과 고통은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 씀, 즉 용심법用心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많은 사람이 애송하는 윤동주尹東柱, 1917~1945의 <서시>이다. 이 시에는 맑은 마음과 경건하고 겸허한 인생관이 깃들여 있어,

읽는 이의 가슴을 울려 준다. 윤동주 시인은 거울처럼 맑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삶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맑게 닦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진실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간직하도록 하자.

그 공부의 첫걸음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편견이나 교만으로는 결코 이 세상의 진실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진실하게 살아갈 수는 더더욱 없다. ‘사람은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존경받는다.’ 항상 ‘화안보시和顔布施, 얼굴빛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여 남에게 보시한다’로 부드럽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어 보자. 쉽게 성내지 않고, 그렇다고 쉽게 깔깔대지도 않는 은근함이 사람을 이끄는 매력이 아닐까? 자신의 미숙함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있겠는가?

바쁘고 여유 없는 생활이지만 짹짹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 보자.

## 행복한 사람들

김천

작가, 시나리오, 다큐멘터리 제작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저서 <불공 잘해라>, <시대를 이끈 창조자> 등



행복해지고 싶다. 불행을 절감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 모든 생명이 원하는 것은 행복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다. 불행은 수렁 같아서 한번 빠져들면 바닥없는 절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쉽사리 놓아주지 않는 집요함에 존재는 사로잡혀 버린다. 온몸에 문힌 불행의 진창은 주변마저 어둡게 물들인다.

행복은 욕망의 문제다. 마하트마 간디는 “행복은 만족이다. 만족 이외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가져와 보라”고 했다.

욕계<sup>欲界</sup>란 충족되지 못한 욕망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이다. 욕계를 겨우 벗어난 색계<sup>色界</sup> 또한 충족될 수 없는 물질적 욕망에 괴로워하는 세상이다. 만족하지 못하기에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스스로 만족하기란 참으로 힘들다. 한순간도 자신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니 그만큼 어려움은 깊어진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과 만족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자신의 만족은 어려워도 타인이 필요한 것을 찾기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자기 눈으로 제 모습은 보지 못해도 남은 찬찬히 살필 수 있다. 나는 불행해도 남의 행복을 돕는 일은 오히려 쉬울 수 있는 것이다. 남의 행복을 통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인연의 도리이다.

중동 지방 척박한 사막에서 가르침을 펼쳤던 어느 성인은 “부자가 극락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일보다 어렵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 반대다. 적어도 자신이 가진 부를 가난한 이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라면 행복하지는 않더라도 세상의 행복을 도울 수 있다.

젊은 시절 정신병원을 들락거리고, 감옥을 오가던 브라질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통해 바라본 마음의 이야기를 문장으로 풀어놓았다. 삶에서 드러나는 명상의 문제를 써서 세계 곳곳에 6500만 명 이상의 독자를 가진 성공한 작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책은 200만 권 이상 팔렸다. 부와 명성을 모두 거머쥔 작가가 된 후 시작한 것은 리우 데자네이루 뒷골목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재단을 만

들고, 400명 이상의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이었다. 자신이 빠져나온 불행의 수렁을 외면하지 않았다. 파울로 코엘료는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우리는 매 순간 삶을 통해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날 입적하신 중국의 한 스님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여배우 천샤오위(陳曉旭)는 빼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젊은 시절 중국 최고의 배우가 되었다. 인민의 애정을 두루 받아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때 홀연히 화장을 지웠다. 사업가로 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경제 부흥에 힘입어 수백억 재산을 모은 재벌이 됐다. 어느 날 모든 재산을 정리해 세상에 돌려주고 출가했다. 그녀와의 약속대로 남편도 출가했다. 출가 전 남긴 말은 이렇다. “부자가 됐지만 나와 내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행복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출가한 후 열반에 들기까지 몇 달 동안 오직 수행에 전념했다. 천 스님은 행복했을 것이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도 더없이 큰 부를 쌓았던 한 분의 공덕이 크다. 부처님께서 머물며 가장 많은 가르침을 펴던 라자그리하(Rajagaha, 王舍城)의 기원정사(祇園精舍)는 ‘세상의 외롭고 불행한 이들을 기꺼이 도왔던 분(給孤獨長者)’ 수닷타(Sudatta)가 있

었기에 세워질 수 있었다.

『아함경』에서 수닷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삶이 청청해지는 것은 태어난 신분과 계급, 입고 있는 옷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세속에서 일군 재산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좋은 가르침과 지혜를 통해 청정한 행동을 할 때 이루어 집니다.

마음을 집중하여 자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청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업(業, Karma)의 법칙을 믿는다. 나의 것이라면 남아 있고 내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떠나고 만다. 그 믿음이 없다면 남을 위해 베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자신이 이룬 것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다. 채울 수 없는 끝없는 욕망을 향해 바닥없는 불행의 수렁을 걸어갈 뿐이다.

정녕 행복해지고 싶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엇을 통해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살피고 또 살펴보라고 하셨다.

옛날 바라나시에 대제석군<sup>大帝釋軍</sup>이라는 왕과 그의 부인 월광<sup>月光</sup>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꿈은 마치 예지몽처럼 항상 현실의 생활과 일치했습니다.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원수진 두 사람이 우연히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그중 힘이 센 사람이 상대방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떠내려가면서 애타게 소리 지르며 구원을 청했습니다. 때 마침 금빛 사슴왕이 강가에 나와 물을 마시다가 사람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황급히 물속에 들어가 그를 태우고 헤엄쳐 나왔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합장하며 사슴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어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내게는 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를 보았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슴왕이 사는 곳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월광 부인이 꿈에 금빛 사슴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그것을 구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왕도 부인의 꿈이 틀림없이 맞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빛 사슴이 있는 곳을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상으로 오백 촌락을 주리라는 영을 내렸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물에 빠졌던 사람은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다. 왕에게 사슴 있는 곳을 알려 상을 탈까? 아니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잠자코 있어야 할까?’

그는 끝내 욕심에 이끌려 은혜를 버리고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금빛 사슴이 있는 곳을 알렸습니다. 왕은 곧 군사를 데리고 금빛 사슴이 있는 산을 포위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천여 마리의 다른 사슴도 살고 있었는데 놀란 사슴들은 모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그때 금빛 사슴왕은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달아나면 군사들은 나를 찾기 위하여 저 많은 사슴을 다 잡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죽고 그들을 살리자.’

금빛 사슴왕은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물에 빠졌던 사람이 금빛 사슴이라고 왕에게 알려주려고 손을 들어 그 사슴을 가리키는 순간 두 팔이 잘려 땅에 떨어졌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놀라 사슴에게 까닭을 물었습니다. 사슴은 다음과 같은 시로 대답하였습니다.

“남의 집 담을 넘어 물건 훔치는 자를 도둑이라 모두 이르네. 그러나 은혜를 입고도 갚지 않는 자, 그가 이 세상에 큰 도둑이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의 사정을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다음 계승으로 그를 꾸짖었습니다.

“은혜를 갚지 않고 다시 해치는 이 무정한 사람아,  
어찌하여 대지는 갈라져서 너와 같은 이를 삼켜버리지 않는가.  
너의 혀는 어째서 백 조각으로 끊어지지 않고서 그대로 있나.  
어째서 금강신은 네 머리를 철퇴로 치지 않고 내버려두는가.  
저 모든 귀신은 어째서 너를 당장에 잡아가지 않는가.  
그처럼 큰 죄악을 지은 너에게 과보는 왜 이처럼 적은 것일까.”

왕은 그 사슴이 큰 보살임을 알고 온 나라에 명을 내려 사슴을 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인도 성지순례기

### ① 성지순례의 시작

#### 남해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 사무국장

현시대 인도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극히 적다. 불교 성지 주변에만 조금 있을 뿐이다. 또한 불교 성지의 유적 규모도 힌두교나 이슬람교 유적에 비해 초라하다.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붉은 벽돌로 된 유적뿐이다. 하지만 인도 성지순례는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나에게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불교 성지순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8박 10일의 일정이었다. 세월이 흐르면 성지순례 시 눈으로 보았던 기억이나 순례 당시 느꼈던 감정과 생각이 희미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기회가 있어 환희로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

어릴 적 불교학생회에 다니며 막연하게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설법을 하시고, 열반에 이르신 곳을 찾아 예를 올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막연한 생각은 총지종에 입교하면서부터 더욱 구체화하였고 비로소 올해 그 서원을 이루게 되었다.

6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11월 21일 목요일 12시 5분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인도 델리로 향하였다. 9시간의 지루한 비

행시간 중 비행기 창문을 통해 보였던 히말라야산맥은 인도 성지순례의 설렘을 더 크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인도에 도착하여 네팔에 갔을 때도 히말라야산맥은 가시거리가 좋지 않아 볼 수 없었다.

델리공항에 도착하여 든 첫 느낌은 “공기가 참 좋지 않구나!”였다. 인도로 오기 전 인도에 가면 밤에 별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인도의 대기 상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좋지 않아 별 볼 일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실망했다. 교무 시절 총지종 괴산 수련원 벽돌집 옥상에서 보았던 무수히 많은 별과 떨어지던 별뿔별의 추억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델리공항에서 하루 묵을 호텔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고 험난했다. 인도의 교통 상황은 혼돈이었다. 4차선 도로에 차들이 6열로 가고 있었으며, 그 상황에서 역주행하는 차도 보였다. 차와 삼륜차, 오토바이, 자전거,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무수히 들리는 경적까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교통지옥이 한 시간 이상 계속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이런 최악의 교통상황 속에서도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인도 사람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았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규칙과 질서가 존재한다는 카오스 이론처럼, 혼란스러운 교통상황 속에서 조금씩 규칙과 질서가 보이기 시작했다. 인도 사람들은 운전할 때 크게 사고나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운전하고, 사고가 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작은 접촉 사고는 운전하다 보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차에서 내리지조차 않았다. 그리고 빵빵거리는 경적 또한 다르게 들렸다. 한국 사람들은 운전할 때 “앞에 비켜, 빵빵!”, “빨리 가야 한단 말이야! 빵빵!” 이렇게 자기가 빨리 가기 위해 경적을 울리지만, 인도 사람들은 “저 여기 있어요. 빵빵!”,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빵빵!”하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적을 울리는 것처럼 보였다.

호텔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인도 음식을 먹었다. 원래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지만 평소에 먹었던 음식인 양 나쁘지 않았다. 여러 종류의 카레가 있어 먼저 가장 연해 보이는 카레를 선택해 먹은 뒤 현지 가이드에게 한국 카레와 맛이 비슷하다고 하니, “당신이 선택한 카레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한국산 카레로 만들었다”는 가이드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델리에서 첫날을 보낸 후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성지순례 일정이 시작되었다. 둘째 날 델리공항에서 10시 30분 비행기로 출발



남해 정사, 바라나시 겐지장 가는 길

하여 12시에 바라나시공항에 도착한 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하셨던 사르나트(녹야원)로 향하였다.

〈다음 호에 이어〉

# 아름다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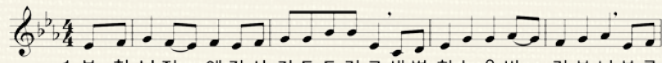
석운 스님 글, 최백건 작곡

묘원화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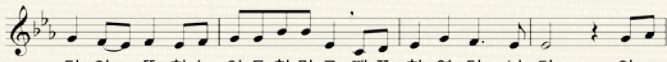
벽룡사

## 아름다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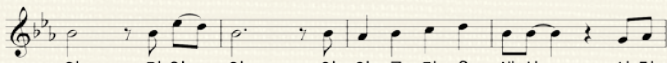
석운 스님 글 / 최백건 작



1. 부처님전 - 에 감사기도드리고 새벽 하늘을바 - 라보니보름  
2. 부처님전 - 에 참회기도드리고 맑은 하늘을바 - 라보니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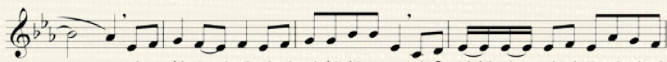
달이 - 뜬 하늘이 무척 맑고 깨끗하였답 니다 아 -  
신태 - 양 세상 가득 내리니 그 빛 가득 하 여라 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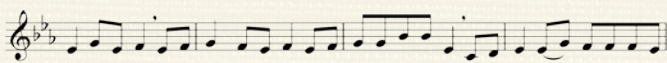
아 더 없 - 이 이 아름다운 세상 - 사람  
아 행복 - 한 이 아름다운 세상 -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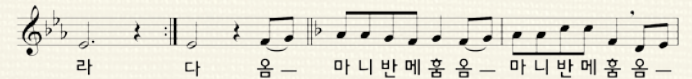
들이 만들어 가는 - 이 열린 세상 만남 -  
모두 더불어 사는 - 이 열린 세상 인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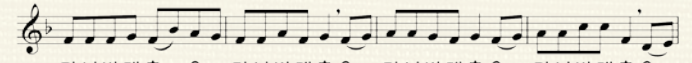
- 기도 할 수 있어 더 없이 환희롭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  
- 정진 속에 - 서 근심 씻어버리고 슬픔 번 - 뇌 - 해악 모든 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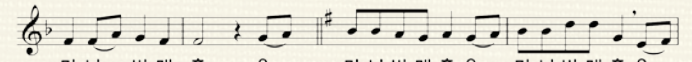
행복하고 참나를 가리운 무명 구름 걸히니 세상 모두가 아름다워  
사라지고 생명있는 존재는 행복 영원하기를 마음 모아 - 기도합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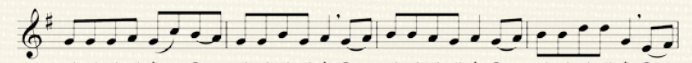
라 다 음 - 마니반메흠음 - 마니반메흠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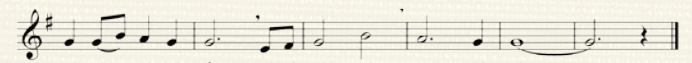
마니반메흠 - 음 - 마니반메흠음 - 마니반메흠음 - 마니반메흠음 -



마니 - 반메 흠 음 - 마니반메흠음 - 마니반메흠음 -



마니반메흠 - 음 - 마니반메흠음 - 마니반메흠음 - 마니반메흠음 -



마니 - 반메 흠 세상 자 비 로 워 라 -

‘옴마니반메흠’ 진언이 많이 들어간 노래가 없을까 살펴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났다. 이 노래는 최백건 선생님이 대전 근방의 절에서 합창을 지도할 당시 운영하던 다음 카페 ‘붓다의 노래 나라’에 부여 보리사 석운 스님께서 올려 주신 생일을 축하하는 글을 다듬고 곡을 붙여 만들어졌다.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노래가 알려진 후 불교 남성 중창단 ‘디 앙상블’이 불러 더욱 유명해졌다. 1시간 반복 듣기를 하다 보면 영락없는 옴마니반메흠 염송 정진이다. 이렇게 예쁜 노래를 만든 최백건 선생님이 궁금해졌다. 알고 나니 너무 소개하고 싶다.

최백건 선생님의 전 이름은 최봉종이다. 17세에 무기수로 교도소에 들어와 복역하던 중에 면회 온 동생으로부터 어머니가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기고 몽둥이에 맞아 다리가 부러져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생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울면서 면회실을 나갔다. 이때는 어머니를 괴롭힌 그들을 증오하는 마음에 벽을 치며 울고 괴로워했다. 같은 방 동료에게 ‘지금의 고통은 인과이며 죄업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스님들 말씀을 전해 들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본인이 저질러온 죄악이 당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을까를 생각하게 됐다. 그러자 분노와 증오가 그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부터 불교를 알기 위해 법회도 참석하고 법문도 새겨들었다. 특히 법회를 통해 알게 된 찬불가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자신을 꾸짖고 깨우치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다. 때마침 창설된 불교합창단에 가입했다. 그러나 음악 지식이 너무 없어 다른 재소자들에게 무시당했다. 오기로 멜로디언으로 무작정 연습하여 몇 달 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에서 찬불가 3곡을 연주했다.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나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후 교도소 내 악대반으로 옮겨 낮에는 피아노와 여러 악기를 익히고, 저녁에는 찬불가 연습, 깊은 밤에는 작사·작곡 공부에 몰두했다.

1999년 불교신문에 난 찬불가 창작 공모 기사를 보고 <흠으로 가더라도>를 응모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더욱이 교도소 사상 처음으로 외부 공간인 대전 엑스포 아트홀에서 일인창무극 예능보유자 공옥진 님과 함께 연극 <흥부전>을 공연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날 <흠으로 가더라도>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2001년 대전 교도소 재소 시절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전국 창작 찬불가 공모전에 <나유타>를 응모했다. 본선 진출자는 작곡자가 직접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입상을 포기하고 있었다. 본선 진출을 통보받고 교도소의 배려로 서울 대회에 참석하여 혼신을 다해 부른 <나유타>는 대상을 받았다.

이후 모범수로 감형되어 2005년 8월, 17년 만에 34세의 나이로 사회에 나왔다. 남은 생은 노래로써 참회하며 살자고 다짐하고, 대전 인근 사찰에서 조석 예불과 노래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최백건 선생님은 그 다짐을 잊지 않고 실천 중이다. 이제 대전·충청 지역을 벗어나 강원도까지 어디라도 찬불가를 듣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라도 나선다. 초기 곡들은 무척 슬프지만 10여 년 즈음부터 곡이 밝고 행복해졌다. 찬불가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백건 선생님의 사연을 소개한다.

오마니반메흠.

## 오대서원 五大誓願

##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오대서원은 다섯 가지 큰 서원을 말하는 것으로, 오대원 五大願이라고도 합니다. 서원 誓願이란 사전에는 원 願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맹세하는 일이라고 나옵니다. 맹세는 꼭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들어갑니다.

오대서원은 다섯 가지의 큰 서원을 반드시 실천하여 이루겠다는 원을 뜻하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 本願이면서 모든 불보살님의 총원 總願이기도 합니다.

1. 중생무변서원도 衆生無邊誓願度 - 아촉불의 보리심  
중생가가 없는지라 제도하기 서원이며,
2. 복지무변서원집 福智無邊誓願集 - 보생불의 복덕구족  
복지가 없는지라 모으기를 서원이며,
3. 법문무변서원각 法門無邊誓願覺 - 아미타불의 전법륜지  
법문가가 없는지라 깨치기를 서원이며,
4. 여래무변서원사 如來無邊誓願事 - 불공성취불의 대정진  
여래가가 없는지라 섬기기를 서원이며,
5. 보리무상서원증 菩提無上誓願證 - 대일여래의 법계처성지  
보리위가 없는지라 모으기를 서원이라.



일반적으로 불교 의식에서 사홍서원 四弘誓願을 행하고 있으나, 불교 총지종은 밀교 경전에 근거하여 오대서원을 종단 의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사대서원에 한 가지를 더한 것입니다.

오대서원은 밀교 의례서인 『불정존승다라니 염송의례법』에 설해져 있는데, 원래는 오대서원 가운데 ‘범문무량서원학’과 ‘무상보리서원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좀 더 내용에 맞게끔 수정을 가하여 ‘범문무변서원각’, ‘보리무상서원증’이라 한 것입니다.

오대서원은 내용과 의미를 보아 더욱 적극적인 보살행을 보여 주는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번은 행원 行願이며, 3, 4, 5번의 ‘끝없는 법문을 배우고 수많은 부처님을 섬기고 위없는 보리를 이루겠다’는 발심 發心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대승 보살행이며, 깊은 신심과 대보리심 발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의 복지 福智는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모으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오대서원은 밀교의 오불 五佛에 비유하여, 불타의 오위 五位에서 일으키는 다섯 가지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 4. 부정적 감정조절이 안 되는 아이

블록 쌓기나 구성물을 가지고 만들기를 잘하는 아이는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지만 함께 놀기보다는 혼자 놀이하기를 좋아한다. 친구들이 구조물에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다가올 때 부정적 감정을 표출한다. 혹시 망가질까 봐 신경질을 부리고, 같이 놀자는 요청에 “싫어!”라며 날카롭게 짜증을 낸다.



### ● 원인

- 또래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인지하지만, 그에 비해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경우
- 인지·언어 발달은 빠르나 상대적으로 사회성 발달은 더딘 경우
- 화를 내면서 부정적 감정을 분출하기 때문에, 감정의 원인을 살펴보고 적절히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지도방법

- 일상에서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 기준을 분명히 하고, 평상시 바르게 행동할 경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모델링과 설명을 통해 조절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아이의 잘못된 표현 행동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해 준다.
- 부모는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 부모는 비슷한 행동이 거듭될 경우 반복해서 설명해 준다.

### ● 기타

- 다양한 감정에 대해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그림책, 인형, 화보 등을 제공한다.
- 마음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본다.
- 아이의 감정이 격해질 때, 장소를 옮겨 분위기를 전환하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 눈으로 읽는 전통등 이야기

## 한국전통등연구원

1996년 전통등연구회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한  
지전통등쟁을 계승하며 새로운 문화를 열어가고  
있다.



### PART 4 전통등 축제 Traditional Lantern Festivals

- I. 풍물놀이 Pungmul-Nori
- II. 추억의 놀이 Traditional Games
- III. 동물이야기 Stories of Animals
- IV. 바다 속 풍경 Underwater Story
- V. 춤 Dances
- VI. 서울빛초롱축제 Seoul Lantern Festival

### 서울 빛초롱 축제

서울빛초롱축제는 전통 등을 주제로 펼쳐지는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이다. 2009년 ‘서울 세계 등 축제’로 시작해 2011년 ‘서울 등 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4년부터 ‘서울 빛초롱 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된다. 매년 3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찾으며,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 중 하나로 꼽힌다.

2024년 12월 13일 개막한 축제는 2025년 1월 12일까지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된다.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지난 호 정답

불	교	총	지	종		무	아	지	경
똥		지		부	작	용		긋	
	생	신		세		지	고	지	순
칠		문	진		철	물		긋	
면			신	라	면		정		역
조	삼	모	사		피	사	체		지
	고		리	본			불	국	사
	초			부	연	설	명		지
한	려	수	도		구				
강			량		소	년	이	온	다

##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	㉞		㉟			㉚㉛			㉜
					③				
			④			⑤			
⑥㉝		㉞			㉟				
					⑦		㉚		
		⑧	㉟						
⑨	㉚				⑩				
			⑪	㉛					㉜
⑫						㉝			
	⑬					⑭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 가로 열쇠

1. 한국 정통 밀교 종단으로 자리이타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 종단
2. 올해는 뱀의 해로 ○○년
3. 부처님의 비밀한 세계, 비밀은 자세히 신밀, 구밀, 의밀의 ○○로 이루어져 있다.
4. 생활 주변의 재미나고 우스운 일을 소재로 만든 극
5. 큰 깨달음이나 진리에 이르는 데에는 정해진 길이나 방식이 없음
6. 바람 앞의 등불
7. 사람이 세상을 살아 나가는 일
8. 의견이나 주장이 엇갈려 융합되지 못하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9. 폭이 좁고 긴 끈이나 띠 모양의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10. 보살은 팔리어 ○○○○의 줄임말
11. 축 끝에 불을 붙여 사용하는 화살
12. 부전자전, 모전여전, 피는 못 속임.
13. 선악의 견지에서 보는 인격, 판단, 행위 등에 대한 가치, 도덕적인 품성
14. 대통령이나 특정 고급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 세로 열쇠

- ㉞. 종교의 형세가 나날이 나아가는 모습
- ㉟. 지구상의 모든 국가나 지역이 한마을처럼 가까워짐
- ㉚. 지루하고 속이 답답한 증세
- ㉛. 광화문에 있는 대형 서점, 오프라인 문화콘텐츠의 집합소
- ㉜. 산세, 지세, 수세 따위를 판단하여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해 설명하려는 이론이나 주장
- ㉝. 사람의 키만 한 정도로 만든 불상
- ㉞.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한다는 보살
- ㉟. 가벼운 물체나 물결 따위가 바람에 조금씩 자꾸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모양
- ㉚. 불상이나 불화에서 본존을 좌우에서 모시고 있는 불상
- ㉛. 사물의 순서나 위치 또는 이치가 거꾸로 된 것
- ㉜. 서로 간에 마음이나 뜻을 모아 화목하게 어울림
- ㉝. 핵무기나 핵연료의 사용을 반대함
- ㉞.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b>서울경인교구</b>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홍파동)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미아동)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상봉동)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안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b>충청전라교구</b>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이평리)	(043)833-0399
<b>대구경북교구</b>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양월리)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중성리)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다경길36-19 (하구리)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b>부산경남교구</b>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도남동)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심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금산리)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남 혜 법 공 보명심 안한수 우 인  
이수영 이인성 이해성 자선화 정건호 정희련  
진 여 차인호 총지화 한철수

### (사)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일동(무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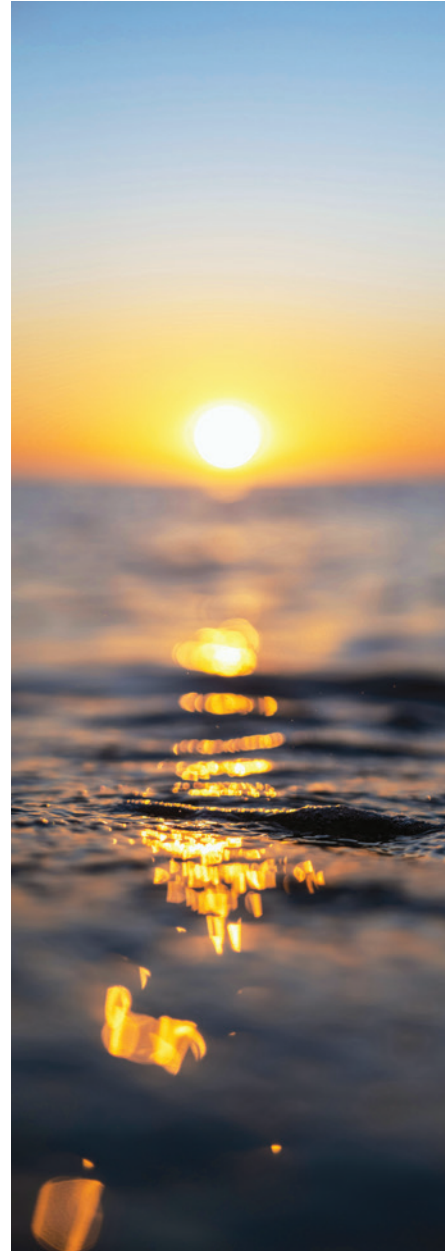
지회) 박차봉 강영철 박영중 조덕제 옥창윤  
윤병재 김갑태 박종한 김상길 김인규  
황규철 이정식 김영옥 이금숙 여성숙  
배여진 김정순 김행숙 서순옥 서금순  
박영구 조장현 박태수 김일량 장승재  
본회) 최우성 조현숙 최금란 박정미 정봉채  
박봉수 전재우 김진문 윤종일 김석한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http://www.chongji.or.kr>

✉ 이메일 : news@chongji.or.kr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그 등불은 너희 성문들로서는 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네가 사해(바다)의 물을 거기에 쏟거나 산바람으로 그것을 불더라도 그것은 끌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체 중생을 두루 건지려고 큰 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은 가난한 여인 난타가 부처님께 올린 등공양에서 유래한 말로 가난한 사람의 단 하나의 등불이, 단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얼마나 큰 빛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여기서 ‘빈자’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담겨있다.

어수선한 나라 상황에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 들고 나온 수많은 응원 봉의 빛은 대한민국의 빈자일등이 되었다. 빈자일등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듯이, 우리 국민의 빛은 불의와 부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밝히는 꺼지지 않는 빛이 되고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밝고 확실한, 너무나 뚜렷하여 모호한 데가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덮으려고 하는 어둠을 부디 새해가 거두어 가길 바란다. 을사년 새해에 모두 평안할 수 있는 큰 까닭이기도 하다.

발행일 총기 54(2025)년 1월 1일

발행인 록경 정사

편집책임 박재원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01월호



참된 진리는 가까이 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쉬운 신에게 의지한다  
있지도 않은 신을 믿는 것을  
부처님께서서는  
얼굴도 모르고 미인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중에서 -